

허무와 싸우는 인생 vs. 약속을 붙드는 인생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읽기 창세기 4:13-26

1. 하나님을 떠난 가인: 쉽 없이 유랑하는 인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후 회개보다는 자기방어적인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땅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땅에 죄가 증폭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의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유리함, 방황)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뿌리 뽑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는 정처 없고 뿌리 없는 운명과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손을 낳고, 도시를 건설하여 그 도시를 아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겉모습은 도시 건설자로서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살았던 땅 이름처럼 정처 없이 유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은 쉽 없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성공을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사 57:21).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뿌리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의미와 평강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문명을 건설하는 가인의 후손: 허무와 싸우는 인생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얻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일처제의 결혼 질서를 파괴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보복을 아내들에게 과시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23절b) 원래 인류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이어지고, 이제는 작은 상처에 대해서도 살인으로 보복하는 폭력적인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약육강식과 피의 보복이 지배하는 냉혹한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칠십칠 배’라고 떠벌립니다. 제한 없는 폭력과 복수를 의미합니다. 죄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계보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각각 목축업자, 음악가, 구리 세공사의 조상이 됩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한편으로는 죄가 폭증하지만, 한편으로는 문명과 기술도 발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 인생의 허무와 싸우며 어찌면 더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인생의 허무와 싸우며 만들어 낸 번영이 과연 복일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화려한 도시와 문명은 홍수심판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잠 24:19) 인생의 허무와 싸우며 얻은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참된 번영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3. 셋의 후손: 약함 속에 약속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25절).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했지만, 셋을 낳았을 땐 아담이 “하나님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대조됩니다. 자기중심적 욕망이 증폭되는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연결됩니다. “셋도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26절)” 에노스의 뜻은 ‘약함’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와 기도를 뜻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처럼 특출한 재능도 없고, 화려한 도시와 문명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 의인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실패, 약점과 강점도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평범하고, 실패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땅을 차지할 진짜 승자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마저 소망과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하나님의 징계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3-14절)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15절)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2.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거주합니까?(16절) 그 후 가인은 무엇을 합니까?(17절)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3.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어떤 인물입니까?(19절, 23-24절) 라멕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입니까?(20-22절)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질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질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은 누구입니까?(25절)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어떻게 다른니까?(26절)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함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지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주기도문